

‘빈센조’ 송중기 이탈리아 마피아 변신

‘주체적으로 말 하는 인물 선택하죠’



상반기 tvN ‘텐트폴’ 작품... 20일 첫 방송 “나쁜놈들 혼내주는 사회 비판 메시지 공감”

배우 송중기(36)가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로 얻은 좋은 기운을 tvN 드라마 ‘빈센조’로 이어갈 수 있을까.

올 상반기 tvN ‘텐트폴’(총영 기획대작) 작품으로 불리는 ‘빈센조’는 제작비 200억원과 송중기 주연, ‘열혈사제’ 등을 히트시킨 박재범 작가의 신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줄거리부터 독특하다.

송중기가 연기할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로, 국내 베테랑 독종 변호사인 차차영(전여빈 분)과 함께 약당의 방식으로 약당 퇴치에 나선다.

15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송중기는 “요즘 뉴스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박재범 작가님께서 시놉시스를 주셨는데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공감됐다. 굉장히 새로운 장르, 하이클래스 장르”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어 “하지만 그것만 있다면 매력 없었을 텐데 그걸 유쾌하게 풀고 싶어하시는 지점이 나한테는 굉장히 속 시원한 탄산수 같이 다가왔다”며 “서사는 무겁고 긴지만 유쾌하

고 상쾌하고 통쾌한 드라마”라고 덧붙였다.

그는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전여빈에 대해서도 “빈센조와 차차영은 극과 극이지만 둘 다 외로운 존재들이고 열정이 비슷하다. 교집합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된다”면서 “전여빈 씨를 보면서 엄청난 배우가 나왔다고 생각했다”라고 팀워크를 자랑했다.

전여빈 역시 “대본을 읽자마자 땀방과 온방을 왔다 갔다 하며 다음 내용이 얼른보고 싶었다”면서 “빈센조와 차차영은 톱과 제리 같은 관계인데, 상생이라는 단어도 떠오른다. 송중기 선배님은 모든 걸 잡아주고 받아주고 끌어준다”라고 화답했다.

연출은 ‘돈꽃’, ‘왕이 된 남자’ 등으로 힘 있고도 섬세한 연출력을 입증한 김희원 PD가 맡았다.

김 PD는 “독특한 설정이지만 전체적인 드라마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신경 썼다”라고 밝혔다.

‘빈센조’에는 이외에도 유재명, 김여진, 박동연, 조한철, 이항나, 최덕문, 리우진, 김형욱, 양경원, 윤병희 등이 출연한다.

‘승리호’ 선장역 김태리

연극 무대를 거쳐 20대 후반의 나이에 ‘아가씨’로 강렬하게 데뷔한 이후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채워오고 있는 그녀는 작품을 고를 때 “일단 시나리오를 재밌게 봐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한다”며 “주체적으로 자기의 말을 하는지 많이 봐요. 이걸 하고서 고된 별로, 이걸 겪어보고 하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이 끌리는 것을 선택해요.”라고 했다.

함께 했던 감독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특유의 털털하고 낙담 좋은 말투로 당부의 말도 남겼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시는 동안 작품 많이 많이 하고, 외국 작품 말고 한국 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한이 없겠습니다.”



선미가 돌아온다... 23일 ‘꼬리’ 발매

솔로 가수로서 개성있는 음악을 선보여온 선미가 신곡으로 컴백한다.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선미가 오는 2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꼬리’를 발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속사가 이날 공개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새 앨범에는 타이틀곡 ‘꼬리’(TAIL)와 수록곡 ‘꽃갈래’(What The Flower)가 담겼다.

선미는 두 곡의 작사 및 공동 작곡을 맡아 자신의 색깔을 보여준다. 타이틀곡 ‘꼬리’는 ‘사이렌’, ‘날라리’, ‘보라빛 밤’ 등 전작들을 함께 작업했던 작곡가 프란츠(FRANTS)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췄다.

강렬한 제목이 눈에 띄는 ‘꽃갈래’는 크러스, 태연 등과 작업하며 세련된 사운드선 선보인 작곡가 홍소진이 참여했다.

선미가 신곡으로 돌아오는 것은 지난해 6월 발매한 ‘보라빛 밤’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그를 원더걸스 출신인 선미는 솔



로 가수로 나선 뒤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 ‘날라리’ 등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곡들을 잇달아 히트시켰고 최근작 ‘보라빛 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엄정화 첫 예능MC 도전장

16일 tvN 예능 ‘온앤오프’ “함께 즐기는 시간 갖겠다”

“예능은 영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 기쁨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싶었고 새로운 기분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이라 즐거울 것 같아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죠.”

영원한 디바 엄정화(52)가 데뷔 28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 MC에 도전장을 냈다.

15일 열린 tvN ‘온앤오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첫 녹화 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른 멤버들이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왜 고민했나 싶었다. 또 성시경이라는 멋진 MC가 든든하게 있어 부담감을 많이 덜고 시작하게 됐다”며 “도전이라기보다 함께 즐

기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시즌 1에 이어 ‘온앤오프’의 진행을 이어가게 된 성시경은 공동 MC로 맡게 된 엄정화에 대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따뜻한 분”이라며 “저처럼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보다 누나가 따뜻하게 물어봐 주면 게스트분들도 마음 편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 주지 않을까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두 번째 시즌까지 오게 된 ‘온앤오프’의 매력에 대해서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화법의 문제인 것 같다”며 “저희는 최대한 따뜻하고 솔직하게 그 사람을 보여주고 노력하려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온앤오프’의 연출을 맡은 신찬양 PD는 “따뜻한 시선과 공감 어린 조인을 갖춘 엄정화, 3년 만에 복귀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활약해 준 초아, 동갑



tvN ‘온앤오프’ 온라인 제작발표회.

연합뉴스

내기인 윤박과 낙살의 티키타카까지 다섯 멤버가 호흡을 맞추면서 웃음이 좀 더 커졌다”며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초대하고 싶은 게스트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봉준호 감독, 정은경 질

병관리청장을 꼽은 신 PD는 “프로그램 시간이 토요일 저녁에서 화요일 밤 시간대로 옮겨지면서 좀 더 늘어난 시간 내에서 출연자들의 일상을 더 자세하고 집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1:55 나의 살던 고향은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미디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미디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코미디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달이 뜨는 강(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30 SBS 뉴스 10:30 설맞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뿌로로 노래해요 8:00 땀땀 땀 땀 땀 8:30 투디투 9:40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나드리 플러스 14:45 도라지 영어나라 15:15 도라지 나도 과학자 16:15 울리 앤 롤 16:30 땀땀 땀 땀 땀 18:00 생활왕 토크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13:50 송타 13:55 너의 살던 고향은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이수익 쌤과 함께 스페셜 15:00 아날로그 라이프 16:00 시사간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0 리얼속의 김이십사다 3(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산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TV는 사랑을 싣고(재)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외우외우 콜링프렌즈 12:50 뽀뽀뽀 친구친구 13: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로(재)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임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보물섬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달이 뜨는 강 21:30 달이 뜨는 강 22:10 달이 뜨는 강 22:40 목말의 문제아들 1부 23:20 목말의 문제아들 2부	18:10 테마여행 길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사진 정리 사보스 22:10 사진 정리 사보스 22:40 PD수첩 23:35 스페셜	18:50 발도강산 GoGo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커 21:40 순간포커 21:40 순간포커 22:20 불타는 청춘 1부 23:00 불타는 청춘 2부 23:30 불타는 청춘 3부	7:00 KCTV 뉴스 7:50 볼록체인 in 제주 9:00 KCTV 뉴스 9:30 헬린이 퀴즈챌러 10:30 재미로 먹고 산다 12:00 특목TV 특선 13:10 UHD 특선 15:20 헬린이퀴즈챌러 16:10 UHD 특선 17:00 KCTV 뉴스 18:00 세계의 99방상 20:00 헬린이 퀴즈챌러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6일
	36년 문서 계약이 유희나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계구설의 시끄러움이 들린다. 폐사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72년 지식 문제를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서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42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보증을 보류. 54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으니 초정 모임에 적극 응하라. 66년 남자는 만 용은 오히려 독이 되니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라. 78년 주인의 감언이설에 신경을 쓰거나 조심해야 한다. 90년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비우라.
	43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의 행운이다. 55년 돌입이나 투자 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을 나눠 볼 것. 67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관심도 이익이 된다. 79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를 가져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91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44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6년 부인의 배려가 있는가 하면 불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68년 주어진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이익이 있다. 80년 카운슬러-간호-항방분야 종사자는 상사의 칭찬 또는 인정받는 다. 92년 돈 문제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
	45년 약속 지체 시 신뢰가 떨어진다. 57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업 분인이 느껴야 한다. 69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법. 변통은 자체적으로 신중해야 할 것 같다. 81년 정보활용이 절실하다. 평생교육 환경을 통해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93년 마음이 편잡하고 아쉬운하다. 자신을 가꾸는 변화도 중요하다.
	46년 아랫사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58년 몰류업이나 유류업은 분주하고 할 일이 늘어난다. 70년 자격증을 한 개 정도는 취득하는 해로 정해본다. 82년 능률적인 학습전략이 자격증이나 시험을 유리하게 한다. 94년 친구나 동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
	47년 지갑 소지품을 분실하니 주의. 내부 소행이 될 수 있다. 5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대한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속도 온다. 71년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도로 모르게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 83년 특별히 시간이 되도록 내만의 설계 계획을 필요하다. 95년 모임에 참여함도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41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수 있다. 53년 지식의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한다. 과도한 충고와 자제. 65년 화근이 말에서 시작되니 연행에 신중하라. 작은 실수가 큰 후회를 만든다. 77년 이동, 변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9년 충고는 사방에서 시작됨을 알라.

김종상 지단(예)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